"국제도시 기반구축에 역점"

박광태 광주시장

저탄소 생명녹색도시 조성 U대회 최고 대회 만들겠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8일 송년 기자회견 및 간담회에서 내년 역점 추진시책으로 경제살리기와 국제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을 꼽았다.

-내년 시정 구상을 밝혀달라

▲내년은 1등 광주 건설 5개년 2단계 사업이 본격 착수됨으로써 광주발전의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다. 국제도시 기반구축,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도시 건설, 글로벌 문화예술 창조도시 조성,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서남권 중추도시 건설 등을 시정 목표로 잡았다.

또 21세기 서남권을 선도하는 중추도시에 걸맞게 인구 200만명 규모의 '신(新)광주 메트로폴리탄'을 구축하는데도 힘을 쏟겠다.

-광주의 취약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복안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생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미래형 생명녹색도시로 조성하겠다. 특히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도민속촌과 공예단지, 세계음식타운, 워터파크, 축구장, 문화산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100만평 규모의 '스포츠·레저·관광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

-내년은 2015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원년이다

▲U대회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역대 최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범국민적 조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하계U대회 기간에 외국인 통역활동에 참여할 2만여명의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기 위해 'U대회 영어스쿨'을 운영하겠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복안은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내년에는 투자 유치활동에 박차를 가해 더욱 많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광주 R&D특구가 지정되면 자동차와 디지털 가전, 광산업 등 미래 성장산업의 확고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 또 지역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쌀과 금 선물 및 현물 거래가 이뤄질 '동북아 상품거래소' 유치·설립 작업도 서두를 계획이다.

-내년 추진할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당에 담을 소프트 웨어 개발과 문화산업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글로벌 문화예술 창조도시 분야에서는 내년 상반기 영상복합문화관·빛고을 시민문화관의 개관에 이어 국립예술 도서관, 빛고을 문학관 건립 사업이 잇따라 착공된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데

▲지금 선거전에 휘둘리면 시정은 온통 마비될 것이다. 지금 당장 뛰어들 경우 현역이 유리하겠지만, 다소 손해를 보고 얻어 맞더라도 내년 2월말 까지는 시정에 전념한뒤 그 이후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현재 중앙당에서 경선 배심원제가 논의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중앙당의 공천기준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 기준을 따를 것이다. 공천기준은 중앙당의 몫이고 당에서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본다.

-올 한해 시정의 성과를 꼽는다면

▲글로벌 경제위기, 신종인플루엔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를 시민들과 함께 유치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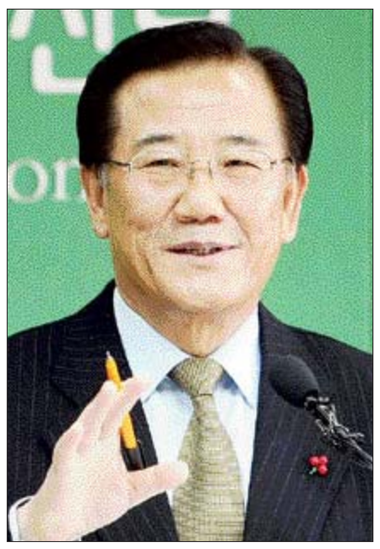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광주 R&D특구 지정 약속을 받아낸 것도 큰 성과 중 하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업유치 일자리 만들겠다"

광주시장·전남지사 송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박준영 전남지사



신소재·우주항공 단지 등 미래 성장 산업 적극 육성

박준영 전남지사는 28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내년 도정 주요 목표를 투자 유치 및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F1 대회 성공개최, 미래산업 기반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주요 도정 운영 방향은

▲전남도의 최대 현안은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산업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남이 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유치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도정 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다.

-올해 인구 감소 폭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요인은?

▲전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출생률은 높은데 인구가 매년 감소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매년 전남의 인구는 3만8천여 명이 감소했는데, 올해 7천여 명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최근 20년 사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지난해 410개의 기업 유치를 통한 1만2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교우위 자산 산업화는 어떤 것이 있나?

▲다른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뒤따르게 되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전남만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자산을 산업화해야 한다.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에 뒤졌지만, 풍부한 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다. 특히 먹을거리 안정성은 전남도가 이미 선점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친환경 농업과 축산, 수산 등의 규모화를 통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판로 개척을 한층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식품 회사 유치 등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미래산업 성장 구축은 어떻게?

▲화순 백신산업 등 생물산업 7대 연구기관을 활용해 생물자원 산업화를 추진하고 순천 마그네슘 산업단지 등 신소재 산업 육성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지속 추진해 전남의 미래성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내년 10월 F1 대회가 개최되는데 성공개최에 대한 계획은

▲올해 우여곡절 끝에 F1 대회 지원법 제정과 조직위원회까지 모두 꾸려졌다. 또한, 민자유치도 성공리에 끝마쳤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성공개최 뿐이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범도민지원협의회 등 추진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경주장과 진입도로도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다. 부족한 교통대책과 숙박문제도 해결해 갈 것이다.

-내년 10월 F1대회와 관련, 숙박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일반 투숙객들은 1~2시간 이동거리면 충분한 만큼 광주와 광양지역 숙박시설까지 활용할 것이다. 부족한 숙박시설은 요트를 이용해 섬에서 숙박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계획이다. 또한, F1대회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숙박시설은 갖춰질 것이다.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 레저도시) 일부 사업지구의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에 대한 해결 기미는.

▲투자자가 나타나도 간척지 양도양수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주춤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깨끗하게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견이 있는 것은 해결을 위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을 갖고 풀어갈 것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28일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 나누면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 제11회 촛불의 밤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500명이 촛불을 들고 새해 소망을 빌고 있다. 북구청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마술공연과 후원물품 전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나주 혁신도시 부지매입

농산물유통공사에 이어 두번째…내년 본격 이전 업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관리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나주혁신도시)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나주시와 LH공사는 29일 사학연금공단 본사에서 LH공사와 나주혁신도시 내 사학연금공단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학연금공단의 이번 부지매입 계약 체결로 나주혁신도시는 지난 7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이어 두 번째 부지매입 계약이 체결된다.

사학연금공단은 나주혁신도시 1만919㎡ 부지를 49억4천만 원에 일시금으로 매입했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전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188명이 이전하는 사학연금공단은 사업비 305억 원을 투입해 연 면적 1만627㎡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한전도 조만간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전이 계약할 부지는 나주혁신도시 내 14만9천372㎡면적으로, 부지대금만 676억여 원에 이른다. 한전은 이미 부지대금 169억 원과 청사설계 50억 원, 건축 등 52억 원을 포함해 모두 271억 원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또 전력거래소와 한전KPS도 연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는 나주혁신도시 내 4만4천149㎡(199억8천만 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부지매입 금액으로 49억9천여 만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한편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처음으로 지난 7월31일 나주혁신도시 1만8천757㎡의 부지(84억8천900여 만원)매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1차 중도금 납입도 마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